

여름철 폭염 · 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

2026. 6. 4.

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

[농식품부] 여름철 폭염·호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방안

I 기상전망(기상청 3개월 전망)

- 여름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고 많으며, 국지적 호우 발생 빈도 증가 전망
 - (기온) 여름철 평균기온 및 해수온 상승세 지속 전망
 - * 평균기온: 평년('91~'20) 23.7℃→ 최근 10년 24.6℃ / 평균해수온: 최근 10년 23.1℃→ '25년 23.8℃
 - (강수) 6~7월(장마철)은 평년보다 많고, 8월은 감소할 전망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전망
 - (태풍)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(여름철 2.5개)과 비슷할 전망

II 품목별 수급 전망

1 엽근채소(배추, 무, 상추 등)

- (배추·무)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작형 재배면적이 지속 감소*하는 추세이나, 현재까지 초기 작황은 양호
 - * 여름배추 재배면적 : ('20) 5,056ha → ('23) 3,995 → ('25) 3,579 → ('26p) 3,343
 - ** 여름무 재배면적 : ('20) 2,792ha → ('23) 2,927 → ('25) 2,688 → ('26p) 2,560
- (상추·깻잎) 주로 시설에서 재배되며, 생산소요기간이 30일 내외로 짧고, 일정 수준 재배면적을 유지 중

2 과채류(수박, 참외 등)

- 대다수 품목의 재배면적이 증가*하였고, 현재 작황도 양호
 - * 재배면적: (수박) 전년비 2.4%↑, (참외) 0.4%↑, (토마토) 1.5%↑, (오이) 4.1%↑

3 과일류(사과, 배, 복숭아 등)

-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였으며, 봄철 개화기 냉해 등 피해 규모가 감소하는 등 생육상황은 전년비 양호
 - * 재배면적 : ('26p) 사과 33천ha(전년비 0.3%↓), 복숭아 20(0.3↓), 배 9(2.4↓)
 - * 사과 저온피해의 경우 조사 농가의 91.1%가 전년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(KREI)

4 축산물(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 등)

- (돼지) 하절기(6~8월) 도축공급량은 전년수준을 상회할 전망
* 도축전망(6~8월) : ('25) 415만마리 → ('26p) 418(전년비 0.7%↑)
- (닭고기) 부화용 종란 수입(1,100만개, ~6월말)으로 전년수준 육계 공급 가능
* 여름철(6~7월) 공급량: ('25년) 13,973만마리 → ('26년) 13,914만마리(0.4%↓)
* 보양식 수요가 집중되는 삼계탕용 닭은 공급이 증가('25년 4,716만마리 → '26 4,854)하여 안정공급 전망
- (계란) 1~4월 입식량이 최대규모로 증가(전년비 14.4%↑)하여, 7월 이후 전년 수준 생산량 회복 전망
* 일일 계란생산량 : (6월p) 4,692(전년비 3.6%↓) → (7p) 4,898(0.3↓) → (8p) 4,947(1.3↑)

◇ 집중호우·고온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및 축산물 생산성 저하 가능성

- 특히, 고온 지속 시 석회결핍, 햇볕데임, 산란율 저하 등으로 농축산물 공급 여건 악화 우려

< 이상기상으로 인한 주요 품목 가격 급등 사례 >

- ▶ (배추) '24년 8월 고온으로 9월 가격 급등(배추 전년비 90.0%↑)
- ▶ (과채) '23년 장기간 호우로 일조량 감소하여 가격 상승(애호박 평년비 75.1%↑, 오이 40.2%↑)
- ▶ (과수) '23년 장기간 호우와 강풍으로 과원 유실 및 낙과 피해 발생, 비 그친 후 탄저병 급격한 확산으로 생산량 큰 폭 감소(사과 30.3%↓, 배 26.8%↓)
- ▶ (산란계·육계) '23년 여름 고온·집중호우로 인해 산란율 저하 및 종계 10만수 폐사

III 품목별 수급안정방안

< 추진방향 >

- ◇ 관계기관 합동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(반장 차관)을 구성하여 산지 작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위기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
- ◇ 이상기상 전망 시 현지 점검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, 재해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체계 유지

1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구성·운영

- 농식품부(품목+재해 담당 부서), 농진청, 농협, aT, KREI 등 민·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수급 불안 요인* 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 운영(6.15~)
* 집중호우·가뭄·고온 등 기상 전망, 병해충 발생상황, 영농자재 공급상황, 작업 여건 등
- 수급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*하여 생육·사육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수급 안정 조치 등 집중관리
* 배추, 무, 상추, 깻잎, 사과, 배, 복숭아, 수박, 참외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

② 수급 불안 우려 품목(배추, 무, 계란, 닭고기 등) 공급여력 확충

- (배추·무) 수매비축 등 정부가용물량*을 확보하여 출하량 감소 시 비상 공급하고, 사전수매계약을 통해 9월 이후 출하분 재배면적 확대 유도
* 정부비축 21천톤(배추 15, 무 6), 출하조절시설 7천톤 → 가락시장 100일 이상 공급 가능
- (계란) 수입선을 다변화(미국+태국·브라질)하여 신선란 3,123만개 수입·공급
* 수입실적(6.1): 누적 899만개(미국 562, 태국 337)
* 수입 신선란은 30구당 5,990원(5월 소매가격 7,404원)에 판매하여 유통업체 가격 인상 최소화 유도
- (닭고기) 현재 수입중인 부화용 종란 1,100만개(잔여 450만개)를 6월까지 순차 수입·공급하고 추석 등에 대비하여 8월까지 600만개 추가 수입
* 수입실적(5.28): 스페인·벨기에산 650만개 완료 / 부화·입식~출하 약 50일 소요
- (수요분산) 돼지고기(12천톤), 닭고기(30천톤), 계란가공품(4천톤) 할당 관세 적용을 통해 가공 및 외식 수요 분산
* (계란가공품) 1.1~6.30 / 돼지고기(5.29~12.31)·닭고기(5.29~7.31) 신규 추진

③ 할인지원을 통한 체감물가 완화

- 가격상승 및 대체소비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(최대 40%)을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
*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따라 여름 휴가철 특별 할인지원 추진 검토
- 닭고기 등 자조금 단체와 연계한 납품단가 인하 병행 추진

④ 작황부진·생산성 저하 대비 생육관리 강화

- (가뭄) 주산지 비상대응체계* 구축, 필요시 살수차 등 긴급급수 지원
* 농진청, 강원도, KREI, 농협 등 관계기관 협업
- (고온) 흑백멀칭필름, 차광제(2,000동), 미세살수장치 및 쿨링패드·차광막·송풍팬 등 노지·시설원예·과수 및 축사 온도 저감 장비 지원
- (집중호우) 병충해 확산 대비 방제 지원 및 약제·영양제 공급 확대

⑤ 신속한 재해 복구를 통한 영농 재개 지원

-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재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예비묘(250만주) 사전 확보, 병해충 확산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(농진청)
-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농작물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조기 지급

[해수부] 여름철 폭염·호우 대비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

- ◇ 여름철 폭염(고수온), 호우 등으로 다량의 양식수산물 폐사 발생 시 수산물 수급·가격에 상방 압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응 필요

□ 고수온·호우 발생 전망

- (고수온) 평년보다 높은 수온($1^{\circ}\text{C} \uparrow$)으로 역대 최장기간 고수온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이른 특보 발령 및 비슷한 기간 유지 전망
* '25년 역대 최장기간 고수온 특보(85일, 7.9~10.1) / '26년 7월 초중순 특보 예상
- (호우) 6~7월(장마철)은 평년보다 많고, 8월은 감소할 전망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전망

□ 대응 방안 : <2026년 고수온·적조 종합대책>

① (재해발생前)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

- (관측) 실시간 수온 관측망* 연계 확대('25년 200개 → '26년 210개) 및 누리집, 앱(수온정보서비스), SMS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
* 수과원(32), 기상청(39), 한수원(6), 전남(96), 완도군(6), 충남(3), 경남(28) 연계·운영
- (장비보급) 고수온 대응 장비* 역대 최대규모 보급('25년 58억원 → '26년 76억원, 31% ↑) 및 신속 집행('26.5월 기준: 이상수온 70%, 적조 67.7%)
* 저층해수공급장치, 액화산소공급장치, 액화산소, 면역증강제, 차광막, 황토 등
- (모의훈련) 고수온·적조 민·관 합동 방제 훈련 실시(6월, 전남·경남)
- (조기출하) 취약 품종(조피볼락, 넙치, 전복 등) 소비촉진 행사(수산대전,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) 연계를 통한 조기출하 유도(상생협의체 운영)
- (교육·홍보) 해상·육상 양식별, 품종별 대응방안 안내(수과원), 재해보험 홍보(수협) 및 피해조사 요령 교육* 실시, 포럼 개최(6월)
* 6월 중 5개 권역(전남·전북, 경남·부산, 제주, 충남·경기·인천, 경북·강원)
** 5개 국어「수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 요령(고수온)」 발간('26.5, 수과원)

② (재해발생時) 신속한 재난 대응

- (초동대응) 피해 취약 해역 대상 고수온 장비 예산 추가 교부(6월) 및 적조 예비특보 해역 대상 신속 초동방제를 통한 확산 예방

- (긴급방류) 「긴급방류 고시」 제정(6월)을 통한 운영체계* 확립, 특보 발표 시 신속한 방류를 통한 폐사 위험 최소화 및 사후 관리
 - * (대상) 치어·중간어(입식 후 60일 이상 경과) / (위치) 지점 간 직선거리 1km 이상 이격
 - ** 긴급방류 협조 대상 차년도 재해보험료 할인(5%↓)을 통해 방류 인센티브 제공
- (대응반)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대책반(본부) 운영 및 관계기관(수과원, 지자체, 수협 등) 합동 현장 관리를 위한 재해대응반 구성·운영
- (품종신호등) 품종별 폐사 위험수준 신호색 표출(한계수온 접근도 표출)

③ (재해발생後) 합리적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

- (피해조사) 「피해조사 요령」 개정(6월)을 통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독립적인 어업재해 조사 대상 → 생계별*로 복구비 지급
 - * 거주지가 동일한父子, 夫婦가 각각 사업등록 : (기존) 1어가: 복구비 최대 5천만원
→ (개선) 1어가 2생계: 생계별로 복구비 최대 5천만원, 합산 최대 1억원
- (재해보험) 이상재해(과거 10년 중 상위 10% 피해) 발생 시 할증 제외, 보험 품목 확대('25년 30종 → '26년 32종) 및 선지급(보험금 50%) 확대
- (복구) 재난지원금 확대('25년 131 → '26년 332억원), 중간어 보상 신설* 등 복구단가 현실화(8월) 및 복구 대상 합리화(부업 어가 포함) 등
 - * (기존) 치어 입식비 단가 → (개선) 치어 입식비 단가 + 사육기간 생산비용 누계
- (간접지원) 이차보전·이자감면* 확대('25년 28 → '26년 30억원) 및 융자**
 - * 상환기한 연기(피해율 30~50% 1년 연장, 50% 이상 2년 연장) 및 이자 감면
 - ** (긴급경영안정자금) 재해복구비 자부담분에 대해 융자 지원

□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 : 폐사로 인한 수급 악화 방지

- (피해예방) 실시간 수온 관측망 확대 및 정보공유, 액화산소 공급 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역대 최대규모 보급
- (조기출하) 수산물 소비촉진(수산대전,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)과 연계 하여 고수온 폐사 전 조기출하를 유도
 - * (수산대전) 6.17~7.5, 7.29~8.16 최대 50% 할인 / (온누리) 6.10~14 최대 30% 환급
- (대응체계 구축)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피해 우려 해역 현장 지도 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수시 조치, 피해 최소화